

엄마와 함께 읽는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동화 6

빨간모자

글: 황정순 그림: 안병원



교학사

옛날, 어느 마을 숲가 작은 집에 귀여운 소녀가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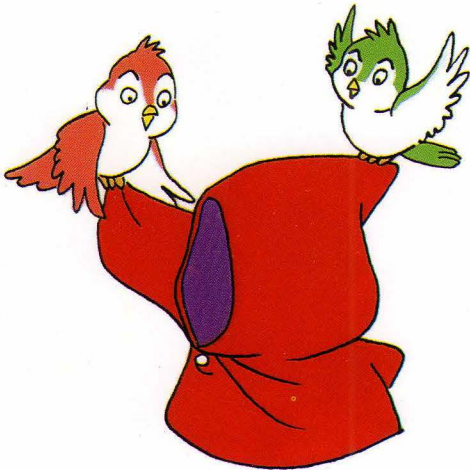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생일을 맞이하여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선물 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빨간 모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예뻐라! 할머니, 고맙습니다.”

소녀는 빨간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 콧노래/코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노래.



“여어, 귀여운 아가씨가 오늘은 빨간 모자를 썼네. 아주 멋진 모잔걸.”

밭에서 일하던 *농부 아저씨가 소녀의 빨간 모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아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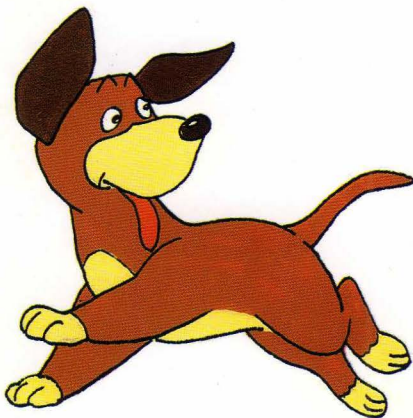
소녀는 기분이 좋아서 이리저리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멍멍, 정말 잘 어울려!”

강아지도 소녀를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빨간 모자만 쓸 테야.”

모두들 예쁘다고 칭찬하자, 소녀는 다른 모자는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농부/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숲 속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구나. 그러니 네가 이 포도주와 과자를 좀 갖다 드리고 오렴.”

“네, 엄마.”

어머니는 빨간 모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절대로 *한눈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엄마. 그럼 다녀 오겠습니다.”



* 주의/조심하라고 충고함.

* 한눈팔다/볼 데를 안 보고 딴 데를 보다.

빨간 모자는 포도주와 과자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숲 속 할머니 댁으로 떠났습니다.

빨간 모자가 숲 *어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간사하고 꾀 많은 늑대가 빨간 모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빨간 모자야, 안녕?”

“늑대야, 안녕?”

“그런데 혼자서 어디를 가니?”

“으응, 숲 속에 살고 계신 할머니 *병문안을 가는 길이야.”



빨간 모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나쁜 짐승인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 어귀/드나드는 길목의 첫머리.

* 병문안/병이 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

“그래? 넌 참 착하구나.”

늑대는 군침을 삼키며 빨간 모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늑대가 큰 입을 썩 벌리고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입니다.

“안 돼! 이 못된 늑대, 어디 맛 좀 봐라!”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 보던 다람쥐와 딱따구리가 늑대에게 도토리과 밤송이를 마구 던졌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살려 줘!”

늑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앞서 가던 빨간 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 허둥지둥/매우 바쁘게 서두르는 모양.

얼마 후, 깊은 숲 속에 이른 빨간 모자는 또 다시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야, 안녕? 또 만났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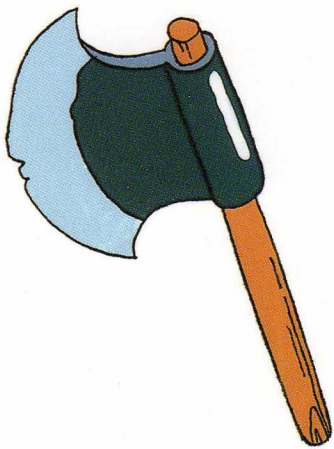
“그래, 반갑다.”

늑대는 아주 상냥한 체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의 뒤를 바싹 쫓으며 빨간 모자를 잡아먹을 틈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늑대는 또다시 큰 입을 썩 벌리고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때, 숲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보던 나무꾼이 도끼로 큰 나무를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 음흉/마음 속이 엉큼하고 흉악함.

“쿵!”

“꽤! 으악!”

늑대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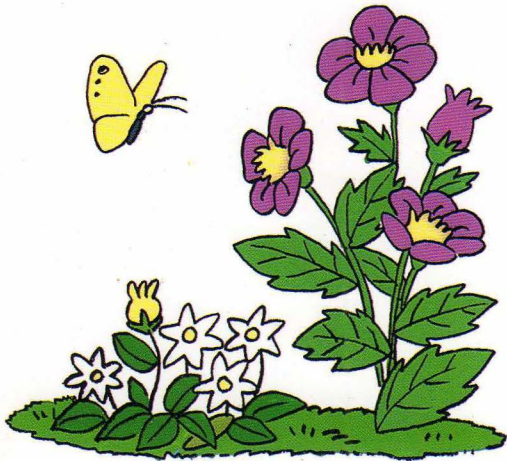
한편, 빨간 모자는 숲을 벗어나서 꽃이 활짝 핀 넓은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아이, 예뻐라!”

빨간 모자가 들판에 핀 꽃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다시 늑대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빨간 모자야, 병문안 갈 때에는 예쁜 꽃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

“참, 그렇구나. 여기서 꽃을 꺾어 가야지.”



빨간 모자는 한눈팔지 않겠다던 어머니와의 약속도 잊은 채 들판에서 꽃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꼭 잡아먹고 말겠다!’

빨간 모자의 뒤에 서 있던 늑대는 또다시 큰 입을 썉 벌렸습니다.

“와앙!”

그러나 늑대는 운 나쁘게도 마침 꽃의 꿀을 먹고 있던 *꿀벌을 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꿀벌은 날카로운 독침으로 늑대의 발을 콧 찌렀습니다.

“아얏!”

늑대는 꿀벌에 쏘인 발이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 꿀벌/꿀벌과에 속하는 곤충. 몸에 독침이 있고, 벌집에 꿀을 모아 먹이로 함.

늑대는 이번에도 또 *실패를 했지만, 이쯤에서 물러설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먼저 할머니 집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 둘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

늑대는 곧장 *지름길을 달려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늑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암전히 말했습니다.

* 실패/뜻을 이루지 못함.

* 지름길/거리가 가까운 길.

“오, 귀여운 빨간 모자로구나.”

할머니는 무척 반가워하시며 열린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빨간 모자가 아니라, 무서운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한 입에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할머니의 잠옷으로 갈아 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꼭 할머니 같은걸.
호호호...”

늑대는 할머니의 웃음 소리를 흉내내며 즐거워 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빨간 모자의 노랫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웁지, 드디어 왔군.’

늑대는 얼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푹 뒤집어썼습니다.

빨간 모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그런데 왜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빨간 모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할머니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가까이로 간 빨간 모자는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커졌어요?”

“너의 고운 노랫소리가 듣고 싶어서란다.”

늑대는 *능청스레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한데요?”

“감기에 걸려 목이 쉬어서 그렇단다.”

“눈은 왜 그렇게 커졌어요?”

“그건 네 예쁜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지.”

“손과 입도 굉장히 커졌는걸요?”



* 능청/마음 속은 엉킴하면서 겉으로는 천연스러운 체하는 태도.

“그건 바로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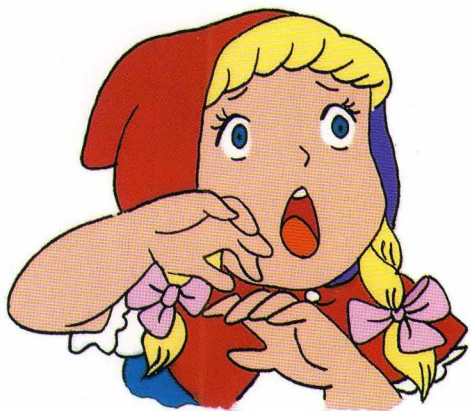
“아앗! 살려 주세요!”

빨간 모자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빨간 모자를 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간 모자야, 어서 이리 오너라. ㅎㅎㅎ.”

늑대는 징그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빨간 모자를 *한입에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 한입/한 번 벌린 입.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잡아먹고 잔뜩 배가
부른 늑대는 슬슬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함! 이제 배도 찻으니 한숨 자야겠다.”

늑대는 블록해진 배를 안고 침대에 드러누웠
습니다.

잠시 후, 늑대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
습니다.

“드르릉 쿨쿨! 드르릉 쿨쿨!”

늑대의 코 고는 소리는 얼마나 요란한지 온
숲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숲 속에서 사냥을 하던 사냥꾼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니, 누가 저렇게 요란하게 코를 골까? 이상한 일이군.’

사냥꾼은 사냥개를 데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 곳은 빨간 모자 할머니의 집이잖아? 할머니가 저렇게 요란하게 코를 고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긴 사냥꾼은 사냥개와 함께 살그머니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머니의 침대에는 배가 불룩 나온 늑대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 큰일났군. 할머니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모양이야.’

사냥꾼은 살금살금 늑대에게로 다가가서 가만히 배에다 귀를 갖다 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뱃속에서 *다급한 사람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 줘요!”



* 다급하다/몹시 급하다.

‘아, 아직 살아 있군.’

사냥꾼은 얼른 자루에서 가위를 꺼내어,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조심조심 갈랐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뱃속에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야아, 이제 살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오, *무사했구나.”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너무나 기뻐서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늑대는 배가 갈라진 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 무사/아무 일이 없음.

“고약한 늑대 녀석!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혼내 줍시다.”

세 사람은 *궁리 끝에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너도 좀 도와 주겠니?”

“네, 할머니.”

빨간 모자는 사냥꾼과 함께 열심히 돌멩이를 날랐습니다.

돌멩이가 웬만큼 채워지자, 할머니가 바늘과 실로 늑대의 갈라진 배를 *원래 모습대로 꿰매어 놓았습니다.



* 궁리/깊이 생각함.

* 원래/본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함, 잘 잤다. 그런데 목이 마른걸.”

늑대는 배에 돌멩이가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늑대는 무거운 배를 안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때, 나무 뒤에 숨어서 늑대를 지켜 보던 빨간 모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지.”



“참, 그렇지.”

늑대는 숨어서 말하는 빨간 모자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 우물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른 늑대는 물을 먹으려고 우물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무거운 늑대는 그만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퐁덩!”

“으악! 살려 줘!”

그러나 늑대의 *비명도 잠시뿐, 늑대는 그대로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 비명/몹시 놀라거나 다급할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

“와아, 드디어 늑대를 해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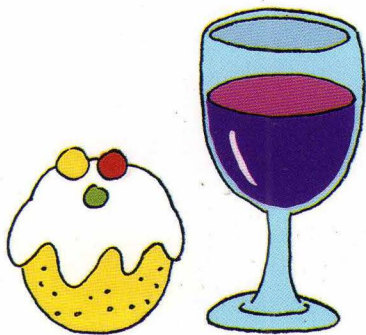
세 사람은 뿔 듯이 기뻐하며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빨간 모자는 어머니가 주신 바구니에서 과자와 포도주를 꺼내 놓았습니다. 할머니도 맛있게 구운 빵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 즐거운 날을 위해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은 들판에 앉아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자, 빨간 모자는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 잔치/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서 여러 사람을 청하여 즐기는 일.

* 채비/준비를 함.

“빨간 모자야, 이 산딸기를 어머니께 갖다
드리려무나.”

“고맙습니다, 할머니.”

빨간 모자는 산딸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
고 어머니가 계시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
했습니다.

사냥꾼도 늑대의 털가죽을 메고 *연방 콧노
래를 흥얼거리며 빨간 모자 곁을 걸어가고 있
습니다.

빨간 모자는 다시 한 번 어머니의 말씀을 떠
올리고는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을 잘 들을 테야.’



* 연방/잇달아 곧.

* 다짐/마음을 굳게 가다듬음.

엄마와 함께 읽는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동화 6

빨간모자



엄마와 함께 읽는
세계명작동화

- | | | | |
|-------------|-------------------|-----------------|-------------------|
| 1. 백조의 호수 | 11. 알프스 소녀 하이디 | 21. 별거술이 임금님 | 31. 이솝 이야기 |
| 2. 정화신은 고양이 | 12. 미운 아기오리 | 22. 아기돼지 삼형제 | 32. 알라딘과 요술 램프 |
| 3. 소공녀 세라 | 13. 파랑새 | 23. 성냥팔이 소녀 | 33. 소공자 |
| 4. 엄지 공주 | 14. 꿀벌 마야의 모험 | 24. 숲 속의 왕자 | 34.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
| 5. 마법사 오즈 | 15. 늑대와 일곱마리 아기염소 | 25. 잠자는 숲 속의 공주 | 35. 신데렐라 |
| 6. 빨간 모자 | 16. 잭과 콩나무 | 26. 행복한 왕자 | 36. 길리버 여행기 |
| 7. 피터 팬 | 17. 신데렐라의 모험 | 27. 피노키오 | 37. 행복한 플리아나 |
| 8. 인어 공주 | 18. 브레멘의 음악대 | 28. 호두까기 인형 | 38. 플랜디스의 개 |
| 9. 현젤과 그레텔 | 19.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29. 엄마 찾아 삼 만리 | 39. 손오공 |
| 10. 빨간 구두 | 20. 일곱 마리 용과 소년 | 30. 빨간 머리 앤 | 40. 미녀와 야수 |

• 퍼낸날: 초판/1994.5.30, 3판/1999.7.10. • 퍼낸이: 양철우 • 글: 황정순 · 권숙자 • 그림: 안병헌
 • 퍼낸곳: (주)교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7
 • 전화: 717-4561~4, 312-6685 • 등록: 제18-7호(1962.6.26.)



ISBN 89-09-01392-3

정가 4000 원